

경제

광주·전남 13개 상장사 빛 값을 능력 좋아졌다

유동비율 94.38%로 40.37%P 증가... 광주신세계 333.44% 1위

거레소 광주사무소 분석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들의 단기 채무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실적 호조로 매출액·영업이익·당기 순이익이 크게 상승한 덕분이다.

2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 지역의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13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반기 보고서와 2009년 사업보고서의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금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유동비율은 94.38%로 지난해 말 대비 40.37% 포인트 증가했다.

유가증권 전체 552개 사의 유동자산과 부채증가율이 각각 7.57%, 3.66%에 그친 것에 비하면 부채가 폭

발적인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백분율로 기업의 단기 채무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유동자산은 5조828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20% 증가했고 유동부채는 6조175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9.23% 감소했다.

2010년 상반기 유동비율 상위사는 광주신세계(333.44%), 부국철강(297.83%), 동아에스텍(250.62%), 화천기공(334.88%), 디에스알제강(170.05%) 등의 순이다.

또 유동비율 증가 상위사는 광주신세계(+60.33%P), 금호산업(44.06%P), 금호타이어(33.09%P), 조선내화(6.72%P), 동아에스텍(5.19%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이 큰폭으로 증가한 데는 영업 실적 호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 지역 12월 결산법인 14개사 중 반기 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셀렌을 제외한 13개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3조3487억원, 영업이익 24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06%, 452.34% 증가했다. 실적 개선으로 순이익은 적자(-2247억원)에서 올해 흑자(9505억원)로 돌아섰다.

워커힐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을 비롯해 가야차 협력업체인 대우에이텍은 흑자 전환했다. 반면 동아에스텍은 지역 유가증권 상장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건설협 전남도회 총회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최상준·남화토건 대표이사)는 25일 담양리조트 2층 송강홀에서 2010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대표회원 선출 운영내규 개정 등을 승인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최상준·남화토건 대표이사)는 25일 담양리조트 2층 송강홀에서 2010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대표회원 선출 운영내규 개정 등을 승인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동북아 물류·관광 허브 광양만권에 투자하세요”

광양청, 日 CEO들 초청 투자유치 활동

“동북아 물류·산업·관광 허브 광양만권에 투자하세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은 25일 일본 (사)오사카 능력협회와 협회 소속 9개 기업 CEO를 초청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광양만권 투자환경 시찰 등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오사카능력협회 쇼우토쿠 유키오 회장을 비롯해 제네시스엔지니어링(주), 일본포 리그루(주), (주)이치노세, (주)츄우옌키케이제작소, 오가와덴 키(주), 라미네이트코유고(주), 히로에너지(주), (주)마루킨조쿠제 작소, MMI(주) 등 협회 소속 9개 기업 대표 1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광양항과 울촌산단, 전남테크노파크, 울촌자유무역지역 등 투자환경을 시찰하고, 광양제철소, 포스코마그네슘, 유립산업, 한국광산업진흥회, LG이노텍, 해원반도체 등 기업체를 방문해 투자유치 상담을 한다. 또 순천왜성,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낙안민속마을 등 광양만권 자연유산도 돌아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 수출건설링 지원사업 성과

광주·전남 5개사 709만달러 실적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 본부(본부장 정운권)의 ‘중소기업 수출건설링 지원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 본부(본부장 정운권)는 25일 광

주·전남지역 중소기업 20개 업체가 수출건설링 사업에 참여해 이 중 5개 업체에서 올해들어 709만달러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LED 생산업체인 (주)포에프는 울

해 1월부터 8월까지 4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83만달러의 추가 수출을 계획이다. (주)시그너스 파워는 풍력발전기 52만7000달러를, 골프스토리는 20만달러어치의 골프그립을 수출했다. (주)벤치타엔아이는 23만달러어치의 광학측정기를 수출하고, (주)나눔테크는 조만간 5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환경·발전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 주력”



기 옥 금호건설 사장 기자간담

“환경·발전 분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겠다.”

기 옥(61·사진) 금호산업 건설 부문 사장은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사장은 “주택사업 보다는 앞

으로 물산업, 원자력발전, 바이오 가스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수담수화, 풍력사업, 바이오 가스 분야 등은 이미 노후가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등 발전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발전 분야 본격 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 사장은 또 “10월4일 주총에서 감자가 확정되고, 12월말까지 개인 주주들의 출자전환이 끝나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감자 후에는 서울터미널 등 추가 자산 매각

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계열사가 사장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리더십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분 감자로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다한 것으로 본다”고 말해 박 명예회장의 복귀가 멀지 않음을 암시했다.

기 사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76년 옛 금호실업 자 금부로 입사해 아시아나항공 전략 기획실장·재무부문 상무 등을 지낸 그룹내 ‘재무통’이다. /연남뉴스

삼성-LG 신제품 곧 출시 김치냉장고 시장 달군다

김치냉장고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6일 2011년형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김치 고유의 맛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지열의 장점과 에너지 절감 기능을 강화한 특징을 앞세워 업계 1위 자리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국내 최초로 4도어를 적용한 2011년형 디오스 김치냉장고 ‘쿼드(Quad)’를 포함한 김치냉장고 65종을 다음주에 한꺼번에 출시한다.

LG전자는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인 이들 제품을 앞세워 주력 상품인 스탠드형 제품을 비롯해 국내 최대 용량인 405ℓ 제품 등 차별화된 기능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김치냉장고 시장을 개척한 위너인 만도도 지난주 ‘딤채’ 신제품을 출시했다. /연남뉴스

호남직업학교 등 20곳

쌍용차, 엔진 등 기증

쌍용자동차는 25일 경기도 광명공장에서 광주 호남직업전문학교 등 전국 20여개 교육기관에 엔진, 트랜스미션 등 연구 실습용 교보재를 기증했다.

쌍용차는 호남직업전문학교에 엔진 6개와 트랜스미션 1대 등 총 7대를 전달했다. 이번 기증한 교보재는 한양대 등 전국 8개 대학과 10개 직업전문학교, 광택지역 공업고등학교 등 20여 교육기관에 디젤 및 가솔린 엔진, 트랜스미션 140대 규모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 |
|-------------|-------------------|
| 코스피지수 | 1,734.79 (-25.74) |
| 코스닥지수 | 467.81 (-7.16) |
| 금리 (국고채 3년) | 3.57% (-0.01) |
| 원·달러 환율 | 1,196.00원 (+5.00) |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
|--|--|
| <p>1. 경매 대상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1층 건물 (면적 150㎡)</p> <p>2. 경매 시작 일자: 2010년 9월 10일</p> <p>3. 경매 종료 일자: 2010년 9월 20일</p> <p>4. 경매 시작 시간: 오후 2시</p> <p>5. 경매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부</p> <p>6.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 건물은 1998년 준공된 15층 아파트 단지 1층에 위치하며, 현재는 공실 상태이다. 건물 면적은 150㎡, 부지면적은 300㎡이다.</p> <p>7.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건물은 100%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 건물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p> <p>8. 경매 대상 부동산의 담보관계: 건물에는 100%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p> <p>9. 경매 대상 부동산의 기타사항: 건물은 100%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 건물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p> | <p>1. 경매 대상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1층 건물 (면적 150㎡)</p> <p>2. 경매 시작 일자: 2010년 9월 10일</p> <p>3. 경매 종료 일자: 2010년 9월 20일</p> <p>4. 경매 시작 시간: 오후 2시</p> <p>5. 경매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부</p> <p>6.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 건물은 1998년 준공된 15층 아파트 단지 1층에 위치하며, 현재는 공실 상태이다. 건물 면적은 150㎡, 부지면적은 300㎡이다.</p> <p>7.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건물은 100%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 건물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p> <p>8. 경매 대상 부동산의 담보관계: 건물에는 100%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p> <p>9. 경매 대상 부동산의 기타사항: 건물은 100%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 건물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p> |